

실질적 양성평등 · 여성 경쟁력 향상 앞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하반기 역점사업 · 사업운영 방향 발표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 이하 센터)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1년도 하반기 역점사업과 사업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센터는 7대 중점 추진과제로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인건경영 문화혁신, ▲전북지역 젠더거버넌스 확산, ▲제10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양성평등 전문강사 커뮤니티 활성화, ▲제2회 여성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경력 단절예방 활성화 포럼, ▲코로나19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센터는 ESG경영 전환을 위해 필수요건인 인건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인지 정책, 양성평등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9월에는 관련 포럼을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에도 힘을 쓴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제10회 젠더문화축제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내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도 계속 확대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이어 제2회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창업프로그램 및 정부지원정책, 전문 창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을 진행한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도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방역체계도 지원한다. 이윤애 센터장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 급변하는 외부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내실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변화할 환경에 앞장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 축산환경 개선에 267억원 지원

전북도가 도민의 환경 의식 향상에 발맞춰, 축산악취개선사업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 267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축산환경개선 분야 7개 사업 150억 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분야 4개 사업 29억 원, 분뇨처리 공공성 강화 4개 사업 88억 원 등 도내 1,277개소에 투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환경 개선은 악취 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냄새 저감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확대,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가 차등 관리제 도입 등 농가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올해 5개 시·군이 선정되며, 9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도 3개 시·군 90억 원이 연이어 선정돼 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와 폐비 부속도 기존 이행 지원을 위해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및 부속축산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분야 및 분뇨처리 공공성 강화 분야에 총 8개 사업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노력으로, 2020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전국 2위, 축산냄새 중점관리농가 축산악취 34% 감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 증가 등 축산환경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유효상 기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남원시 신규 참여 확정

전북도는 도내 4개 시·군(전주, 익산, 김제, 순창)에서 운영 중이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남원시가 추가 선정(2021.4월)됐다고 밝혔다.

이에, 10월부터 도내 5개 시·군 어르신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에 선정된 보건소는 사업수행 인력 인건비 및 사업에 필요한 디바이스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서비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 및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지자)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가 어르신들의 활동량, 체중, 혈압 등 건강정보를 체크해 건강관리전문가에게 전송하면, 전문가가 주 1회 데이터를 분석한 뒤 어르신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손목시계형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생활스피커 등을 제공한다.

어르신은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한 후, 앱(오늘건강)과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받는다.

전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디바이스 구입, 인력 채용·교육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전주교구구장 김선태(가운데)가 1일 전주교구구영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령 및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련 위반업소 적발

전북도, 주요 사업장 단속해 1개소 형사 고발 · 29개소 행정처분

전북도가 도내 가축분뇨 관련 주요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관련 주요 사업장을 단속해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여름철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동해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형축사, 수집 운반업체 등에 대한 생활 주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내 160여개 사업장을 단속해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 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오염 배출 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가축분뇨 처리 시설 관리기준 위반,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이다.

적발된 30개소 위반 사업장 중 익산 시 소재 재활용업체의 경우,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9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예찰 실시

3-29일까지 도내 5개 시·군 대상

전북도가 산림청,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헬기를 이용해 숨어 있는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찾아낼 계획이다.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주시 등 도내 5개 시·군의 산 정상, 계곡 등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과, 기존의 재선충병 피해 지

역과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찰할 계획이다.

항공 예찰에서 발견된 소나무류 고사목은 다시 지상에서 GPS 장비 등을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채취된 시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최종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감염 여부 확인 결과 일반고사목은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을 활용하여 제거하고, 재선충병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정확한 설계와 방제를 통해 내년 4월 말까지 완전히 방제할 예정이다.

박성호 도 산림복지과장은 "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예찰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은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추석명절 '가족에 배달부' 지원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석명절 고향방문이 어려운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석명절 '가족에 배달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에 배달부'는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역간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고향방문이 어려운 출향도민을 위해 자

원봉사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 찾아뵙고 안부를 물으며, 안절무절 꾸러미와 손 편지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광호 이사장은 "가족에 배달부 지원사업을 통해 자칫 추석명절 소외되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석 명절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